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478340)

KOSDAQ

Analyst 이나연 lny1008@kirs.or.kr

RA 권자승 rnjswtmd32@kirs.or.kr

자본재

우주 운용 실적을 확보한 초소형위성 체계종합 기업

나라스페이스는 2015년 설립된 초소형위성 전문기업으로, 위성 설계·제작부터 발사·운용, 영상·데이터 분석까지 사업 영역. 2025년 매출액(132.4억원) 구성은 위성플랫폼(제조) 83.1%, 위성운용 8.8%, 위성영상 5.9%, 기타 2.3%. 동사는 2023년 자체 개발한 Observer-1A의 궤도 안착과 양방향 교신, 지구관측 영상 획득에 성공하며 위성 설계·제작부터 실제 우주 운용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 이후 EEETester-2와 경기넷-2A도 발사 후 양방향 교신에 성공하는 등 우주 운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초소형위성 체계종합 기업으로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

임무 다변화와 반복 제작 수요 확대, 위성 제조사업 성장 기대

동사의 주요 성장 동력은 위성플랫폼(제조) 사업의 적용 임무 확대와 후속 제작 기회 확대에 있음. 기존 광학 관측 중심에서 우주용 반도체·전자부품 검증(EEETester-ETRI), 메탄 관측(한화시스템), 국방 우주기술 실증 등으로 위성 제작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EEETester 사업을 통해 동일 분야의 후속 위성 제작 실적을 확보, 향후 우주부품 검증과 환경·국방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가 추가 수주 기회로 작용할 전망. 2026년 6월 말 수주잔고는 286억 원으로 2025년 말 대비 62.2% 증가, 이 중 위성 제조사업이 236억 원(82.4%).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위성군 확대를 통한 관측 데이터 확보량 및 관측 빈도 개선이 영상 판매·분석 서비스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하반기 제조 매출 확대에도 연간 적자 지속, 성장 기대의 실적 검증 필요

2026년 매출액 149.6억원(YoY +13.0%), 영업손실 92.6억원(적자지속)을 전망. 하반기 기수주 위성의 제작 매출 확대로 반기 영업손실은 축소되나, 인력·인프라 비용 증가로 연간 적자는 확대 될 전망. 2026F EV/Sales는 5.6배로 주요 비교기업 중앙값대비 59% 상회. 위성 제조사업의 추가 수주와 데이터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실제 매출 및 이익 창출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0	16	43	132	150
YoY(%)	N/A	69.9	164.1	207.9	13.0
영업이익(억원)	-22	-30	-44	-55	-93
OP 마진(%)	-231.1	-184.4	-103.1	-41.3	-61.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28	-139	-107	-77	-88
EPS(원)	-1,732	-1,747	-1,193	-783	-761
YoY(%)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0.0	0.0	0.0	20.9	7.9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N/A	N/A	N/A	6.8	3.0
ROE(%)	62.8	51.2	27.5	-440.6	-20.2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15)	9,470원
52주 최고가	61,700원
52주 최저가	7,970원
KOSDAQ (10/15)	760.82p
자본금	12억원
시가총액	1,100억원
액면가	100원
발행주식수	12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59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86억원
외국인지분율	2.66%
주요주주	박재필 외 7인 31.93%
	한국산업은행 5.76%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90	-74.9	
상대주가	-2.9	-62.1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및 연혁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초소형위성 종합 서비스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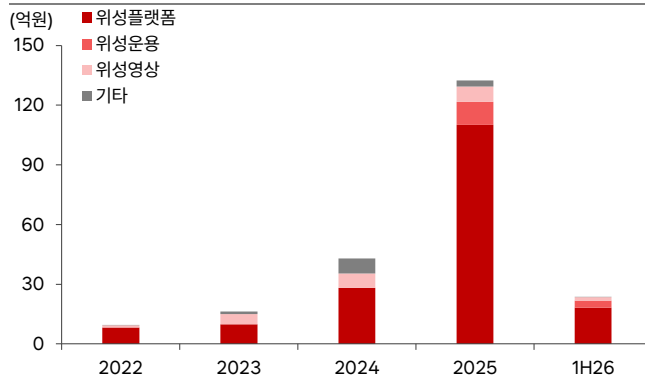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15년 3월 설립된 초소형위성의 설계 및 제조, 위성 운용, 데이터 판매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초소형위성 종합 서비스 기업이다.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물리학과 출신의 박재필 대표이사는 대학교 시절부터 큐브위성 경연대회 등에서 초소형위성을 다수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현재 박재필 대표이사는 우주항공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과 World Geospatial Industry Council(WGI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1년 1월 스페이스X가 라이드셰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스타트업이나 자금 여력이 제한적인 기업들도 초소형 위성인 큐브샷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또한 한국 정부가 2021~2022년 민간 우주기업 육성 사업(스페이스 챌린지, 스페이스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며,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가 국가 사업을 지원받아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정부 지원 등을 기반으로 2023년 5월 제노코로부터 50kg급 초소형위성 플랫폼 개발 사업을 수주했으며, 같은 해 7월 D기관으로부터 항재밍 초소형위성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23년 11월 자사 위성인 Observer-1A 발사 및 양방향 교신과 영상 수신 및 운영에 성공하며, 초소형위성의 Space Heritage(우주 환경에서 실제 작동한 이력)를 확보했다. 이는 국내 민간기업이 자체 개발한 초소형위성으로 궤도에서 지구관측 영상을 촬영 및 수신하는 데 성공한 첫 사례이다. 스페이스 헤리티지 확보 이후 2024~2025년 국내외 주요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수주 및 MOU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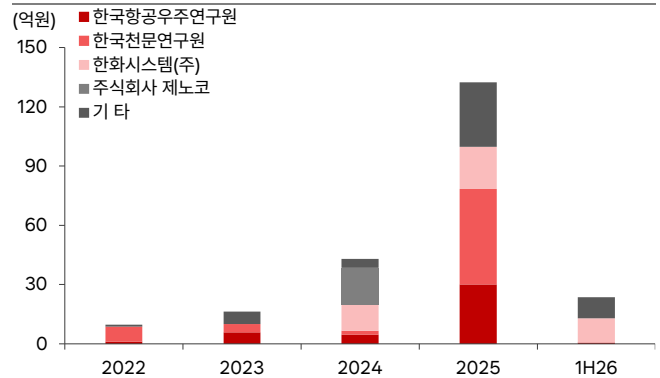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25년 연간 매출액 132억 원(YoY +207.9%), 영업이익 -55억 원(YoY 적자지속)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2023년 16억 원, 2024년 43억 원에서 매년 2~3배씩 성장했다. 2025년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위성플랫폼(위성 제조) 110억 원(YoY +291.0%), 위성운용(발사 대행·지상국 구축·운용) 12억 원(신규 사업부문), 위성영상(영상 판매·데이터 분석) 8억 원(YoY +78%), 기타 3억 원으로 구성된다. 2025년 주요 매출처는 한국천문연구원 48억 원(36.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0억 원(22.6%), 한화시스템 22억 원(16.2%)으로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기업 발주 프로젝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전방 고객사별 매출액 추이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주요 연혁

2015~2022 설립기	2023~2024 스페이스 헤리티지 확보기	2025~ 위성 발사 확대기
2015.03 법인 설립 (부산) 2019.06 부산테크노파크로 본점 이전 2021.05 NASA CLPS 달탐사선을 자기장 측정기 제작 수주 2021.11 항우연 초소형위성 재난재해 분석 시스템 개발 수주 2022.04 Series A 투자 유치 (100억원) 2022.04 스페이스 헬런지 사업 선정 2022.05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 선정	2023.05 제노코 50kg급 초소형위성 플랫폼 개발 수주 2023.07 항재임 초소형위성 개발 수주 (ADD) 2023.11 Observer-1A 발사·고신·영상 수신 성공 (Space Heritage 확보) 2024.04 삼성전자 우주 메모리 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프라 MOU 2024.05 Series B 투자 유치 (200억원) 2024.06 IPEF 유망 100대 기술테크 스타트업 선정 2024.07 NASA 아르테미스 2호 탑재 위성 K-RadCube 개발 수주 2024.08 항우연 누리호 후속발사 성능검증위성 개발 수주 2024.09 한화시스템 환경위성(메탄 관측) 사업 수주	2025.04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보증주 전환 2025.05 경기도 인공위성 사업 수주 2025.06 서울 영등포구로 본점 이전 2025.11 Observer-1B 발사 2025.12 코스타당장 상정 (공모 284억원) 2026.01 ETR 우주반도체 검증 탑재체 실증위성 설계 수주 2026.04 K-RadCube, NASA 아르테미스 2호 탑재 발사 2026.04 국방과학연구소 모의 위성(관제) 시스템 사업 수주 2026.06 우주 검증 위성 개발 용역 계약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기술 및 제품

초소형위성의 군집 위성 방식이
확대 중

인공위성은 무게에 따라 대형(1,000kg 초과), 중형(500~1,000kg), 소형(100~500kg), 초소형(100kg 미만)으로 구분된다. 초소형위성은 10cm x 10cm x 10cm 정육면체를 1U(Unit)로 하는 큐브셋 규격을 따르며, 1U는 약 1~2kg, 16U는 약 25kg이다. 1~3U는 대학·연구 실험 용도가 대부분이고 상업적 활용은 6U 이상에서 이뤄지며,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6U·12U·16U를 주력 규격으로 한다.

위성 영상의 해상도는 픽셀 하나가 지상에서 담는 거리(GSD, Ground Sample Distance)로 표시하며, 숫자가 작을수록 정밀하다. 중대형 위성은 0.5m급으로 차량·선박 식별이 가능하지만, 제작비가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러 1~2기만 운용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을 3일에 한 번 정도 재방문하는 데 그친다. 반면 초소형위성은 1.5m급으로 해상도는 낮지만 제작비가 25억원 내외이고 제작 기간이 짧아 다수를 군집 운용할 수 있어, 재방문 주기를 단축해 실시간에 가까운 관측이 가능하다. 두 위성은 대체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초소형위성 군집으로 상시 변화를 탐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중대형 위성으로 정밀 촬영하는 방식이 국방과 상업 영역에서 모두 확산되고 있다.

우주 프로젝트는 비용과 실패 리스크가 커 고객이 실제 우주에서 작동 이력이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만큼, Space Heritage는 수주의 전제조건에 가깝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23년 11월 Observer-1A 성공 이후 정부 출연연, 대기업, 지자체 수주가 급증했으며, 2025년 11월에는 누리호 4차(EETTester)와 SpaceX Transporter-15(경기셋-

1)로 이틀 간격 발사된 2기, 2026년 5월 부산시 해양관측 위성 부산셋까지 연속으로 궤도 안착과 교신에 성공하며 헤리티지가 누적되는 구조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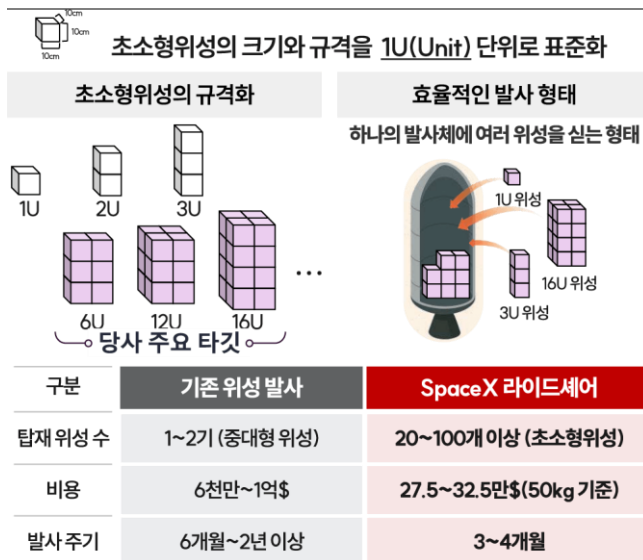
위성 규모별 비교

구분	중대형 위성	소형 위성	초소형 위성
무게	500kg 이상	100~500kg	25kg (16U)
생산 가격	수천억원	약 200억원	약 25억원
양산 기간	4~5년	9개월	1개월
기술 특징	고성능대형 탑재체	일정 수준 성능	일정 성능 유지 + 극소형화
경제성	영상 판매로 수익 회수 어려움 → 정부 의존	비교적 경제적이거나 수익화 제약	저비용 제작 + AI 기반 영상 → 민간 접근 용이

주: 초소형위성의 1개월 제작 기간은 기존 플랫폼 활용 및 부품 확보를 전제로 한 경우이며, 신규 설계시험검수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기간과는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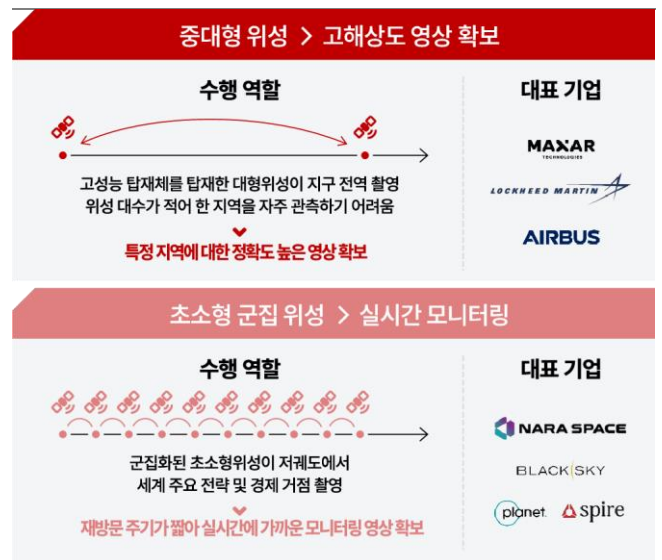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초소형위성 규격과 스페이스X의 라이드셰어 구조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초소형위성의 확대 - 실시간에 가까운 모니터링 가능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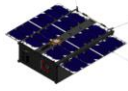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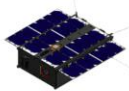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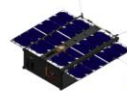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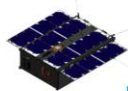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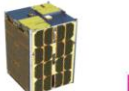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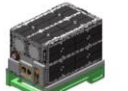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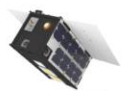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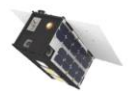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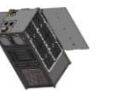
[위성플랫폼 - 2025년 매출액 110억원, 매출 비중 83.1%]

위성플랫폼 사업은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 초소형위성을 설계 및 제조해 납품하는 사업으로, 계약에 따라 진행률 기준 또는 납품 확인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다. 고객마다 탑재체 사양과 대수가 달라 건별 맞춤 제작하는 수주산업이며, 통상적으로 일정부분 계약금(선수금)을 받는 구조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공개된 프로젝트는 6U급 사이버보안 위성(국가보안기술연구소), 양자암호 위성(KISA), 항재밍 위성(국방과학연구소), Pre-6G IoT-NTN 통신 위성 및 우주 반도체 검증 위성(ETRI), 12U급 미세먼지 모니터링 위성(부산시), 심우주 방사선 측정 위성 K-RadCube(우주항공청·천문연),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위성 EETTester(항우연), 16U급 메탄 모니터링 위성 5기(한화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관측), 메탄-재난재해 모니터링 위성(경기도), 통신 중계 위성(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K-RadCube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를 탑재해 유인 달 탐사 승무원의 방사선 환경을 측정하는 임무로 2026년 4월 NASA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되어 발사되었으며, EEETester는 누리호 4차(2025년), 5차(2026년 10월)에 탑재됐으며, 6차(2027년)에도 탑재가 예정되어 국내 중소기업 반도체 소자의 우주 검증 수요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주요 프로젝트

 Classified	 국립과학연구소 Agency for Science Development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광역시
6U Mission OOO 위성	6U Mission OOO 위성	6U Mission 우주 반도체 검증 위성	6U Mission Pre-6G IoT-NTN 통신 위성	12U Mission 미세먼지 모니터링 위성
 KARI 한국천문연구원	 KARI 한국천문연구원	 Hanwha Systems	 Gyeonggi-do	 Classified
12U Mission 실우주 방사선 측정 위성	12U Mission 국산 소자·부품 우주 검증 위성	16U Mission 메탄 모니터링 위성	16U Mission 메탄 및 재난재해 모니터링 위성	16U Mission 통신 중계용 위성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위성운용 - 2025년 매출액 12억원, 매출 비중 8.8%]

위성운용 사업은 고객 위성의 발사 대행과 지상국 구축, 위성 운용 솔루션 제공으로 구성된다. 발사는 SpaceX Falcon 9 라이드셰어(Transporter)를 주로 이용하며, 발사 슬롯은 Exolaunch(독일) 등 중개업체를 통해 확보한다. 지상국은 안테나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극지방 안테나를 다수 보유한 KSAT(Kongsberg Satellite Services)의 안테나와 AWS 클라우드를 임차해 운용하며, 고객 입장에서 제조·발사·운용을 한 곳에서 토크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2025년 5월 경기도 위성 운용 계약(6.2억원)이 첫 위성운용 매출로 인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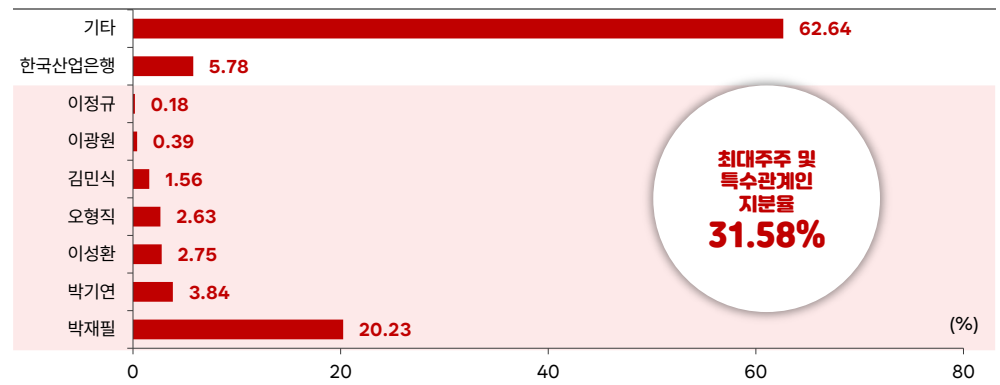
[위성영상 - 2025년 매출액 8억원, 매출 비중 5.9%]

위성영상 사업은 자체 위성 Observer-1A/1B에서 촬영한 영상의 판매와 AI 기반 분석 서비스로 구성된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1.5m 해상도 영상을 0.5m급으로 향상시키는 초해상화(SR) 기술과 구름·그림자로 인한 결측을 보완하는 GF(Gap Fill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위성뿐 아니라 타사 SAR 영상 등을 함께 활용해 해양경찰청 불법 어선 탐지, 지자체 재난 피해 면적 산정 등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주주 구성

2026년 6월 말 기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총 발행주식수는 11,570,133주이다. 최대주주인 박재필 대표이사는 2,340,900주로 20.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인 박기연 미등기임원(3.84%), 이성환 등기임원(2.75%), 오형직(2.63%), 김민식(1.56%), 이광원(0.39%), 이정규(0.18%) 등 임원 6인을 포함한 합산 지분율은 31.58%(3,654,116주)다. 최대주주는 2016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변동이 없으며, 한국산업은행이 5.78%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 기타 주주는 62.64%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 구성(2026말 기준)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검증된 초소형위성 플랫폼, 임무 다변화와 후속 제작 기회 확대

**우주 운용 이력과 탑재체 통합
역량을 기반으로 관측 환경·국방
분야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위성 제조 경쟁력은 우주 운용으로 검증한 초소형위성 플랫폼을 다양한 고객 임무와 후속 위성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고객이 요구하는 관측 대상과 탑재체는 달라도 이를 우주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력·통신·열관리·자세제어 등을 통합하는 위성 본체와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동사는 6U·12U·16U급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 요구에 맞는 탑재체를 결합하고 설계·검증·운용을 수행한다. 외부 전문기업의 장비와 고객 지정 제품을 통합할 수 있어, 축적한 본체·시스템 기술을 광학 관측부터 환경감시, 부품 검증, 국방 분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우주 운용 이력은 이러한 체계종합 역량을 수주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핵심 요소다. 발사 이후 현장 수리가 어려운 위성사업에서는 지상시험뿐 아니라 실제 우주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험이 공급업체의 기술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동사는 2023년 11월 자체 16U 광학위성 Observer-1A의 발사·양방향 교신·영상 획득에 성공했으며, 해당 플랫폼은 NASA의 2026년 소형우주선 기술 현황 보고서에 저궤도 비행 실적을 보유한 제품으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검증·운용 경험은 신규 고객의 기술 평가에 대응하고 후속 위성의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확보한 개발 경험이 후속 제작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위성 EETester다. 동사가 개발에 참여한 본체는 E3T 1~3호에 적용되며,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에 이어 2026년 10월 5차 발사에도 동사가 제작한 위성이 탑재됐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탑재도 예정되어 있어, 동일 사업 내에서 여러 기의 위성을 제작하며 설계와 제작 경험을 축적하는 구조다. 이미 수행한 임무의 요구사항과 검증 절차를 후속 물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 사업의 추가 발주에 대응하는 경쟁요소다. 향후 누리호 7·8차 발사 관련 추가 제작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존 사업 경험을 새로운 수주로 연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플랫폼의 적용 임무가 다양해지는 점도 추가 수주 기회를 넓힌다. 경기도 사업에서는 광학 관측위성 경기샷-1에 이어 메탄 관측용 경기샷-2A를 개발하며 서로 다른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시스템을 구현했다. 경기샷-2A는 2026년 10월 발사 후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으며, 메탄 관측과 상업적 데이터 공급은 초기 운용 이후 확인할 단계다. 국방 분야에서는 모의 위성·관제 시스템 공급계약과 우주자산 보호 기술개발 과제 참여를 통해 개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임무별 탑재체를 기존 플랫폼과 결합한 경험이 쌓일수록 신규 프로젝트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고객 요구의 범위도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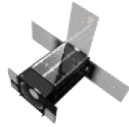
다양한 임무의 수행 경험은 실제 제조 물량 확보로 구체화되고 있다. 2026년 6월 말 수주잔고는 286.1억원으로 2025년 말 대비 62.2% 증가했으며, 이 중 위성 제조가 235.6억원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주요 계약에는 우주반도체 검증, 온실가스 관측, 우주 검증 위성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확보한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별 기술 요구와 제작 경험이 추가로 축적되는 만큼, 향후 후속 사업과 유사 임무의 발주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에서 확보한 제작·운용 경험은 해외 고객 기반 확대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동사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 우주 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고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자체 개발 기반이 제한적인 고객에게는 위성 본체와 탑재체의 통합부터 발사 지원과 운용까지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한 경쟁요소다. 국내 프로젝트의 수행 실적을 해외 공급계약으로 연결할 경우 기존 고객의 후속 제작 수요에 더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검증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적용 임무와 고객을 확대하고, 축적한 경험을 후속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 동사 제조사업의 중장기 성장 경로다.

자체 위성 상용화로 Space Heritage 확보

자체 위성 상용화 성공(Observer-1A)

- 국내 유일 23년 11월 발사/궤도 안착/활영 성공
- 세계 5번째 16U 광학 초소형위성 성공 제조사
- 세계 7번째 16U 위성 발사 성공
- 세계 유일의 16U 위성 영상 공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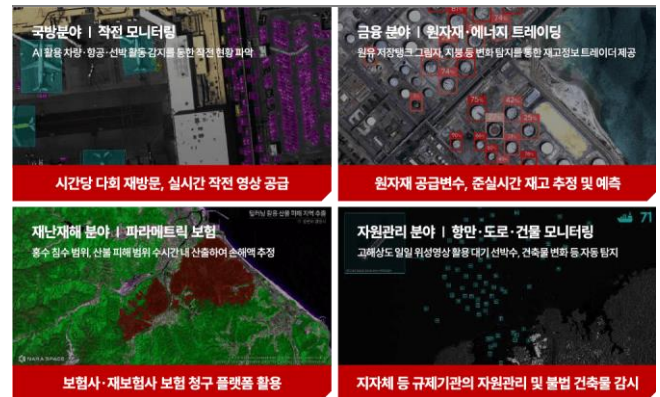
NASA State of the Art(SoA) Small Satellite Report 등재



- 매년 소형 위성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정리한 보고서
- '23년 국내 최초 당사 OBC(On-Board Computer) 등재
- '24년 16U 위성 플랫폼 및 구조계 추가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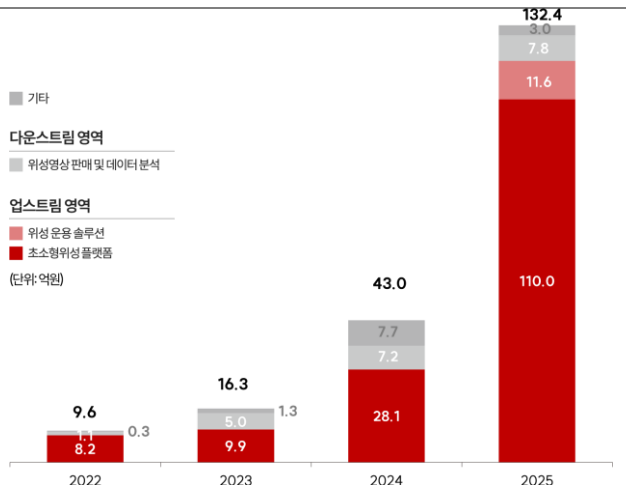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초소형위성 플랫폼 기반 Mission 다변화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도별 매출액 추이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수주 레퍼런스

수주일자	판매·공급계약 내용	계약금액(억원)
2026-01-01	우주시스템 모의훈련·분석용 위성 제작(2차년도)	9
2026-01-22	우주반도체 검증 탑재체 개발 및 실증 초소형위성 설계 용역	21
2026-04-10	모의 위성/관제 시스템	20
2026-04-10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 체계종합 및 본체 개발	29
2026-05-28	온실가스 관측 초소형 위성 탑재체 개발	14
2026-06-19	우주 검증 위성 개발 용역	61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자체 관측자산 기반 데이터 서비스로 성장영역 확대

자체 위성군과 영상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데이터 판매를 확대하며 수익구조 다변화 기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영상 판매·분석 사업은 위성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관측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기관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할 중장기 성장축이다. 기존 제조사업이 고객의 위성 구축 수요에 대응했다면, 데이터 사업은 환경 변화와 주요 시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수요에 대응한다. 자체 위성에서 확보한 영상에 분석 서비스를 결합하면 고객은 위성 개발이나 운용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구매할 수 있다. 동사 입장에서 위성 제작 이후 운용기간에 걸쳐 데이터를 공급하는 매출원이 추가되는 셈이다. 2025년 영상 판매·분석 매출은 7.8억원으로 전체의 5.9%에 그쳤으나, 관측자산과 판매 고객이 함께 늘어날 경우 제조사업 외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러한 관측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은 자체 군집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사는 IPO 당시 광학 관측용 Observer와 환경 관측용 NarSha를 중심으로 2031년부터 총 84기의 자체 위성군을 운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여러 위성을 운용하면 관측 범위와 데이터 확보량을 늘리는 동시에 동일 지역의 재방문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며, 이는 환경감시와 시설 모니터링 등 정기적인 관측 수요에 대응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는 외부 위성 제조 수요 대응으로 구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후행하고 있으나, 자체 관측자산을 확보해 영상 판매·분석 사업을 확대하는 중장기 방향은 유지되고 있다.

위성군을 통해 확보한 관측자료는 데이터의 종류와 판매 면적에 따라 매출로 연결된다. IPO 당시 매출 추정에는 ㎢당 광학영상 10,153원, 환경영상 59,828원의 판매단가를 가정했다. 관측 면적을 기준으로 과금하되 데이터 종류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여기에 판매권과 계약조건이 허용하는 영상을 복수 고객에게 공급하면, 동일한 관측자료에서도 추가 매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데이터 사업의 성장에는 관측 능력 확대와 함께 확보한 영상을 구매하는 고객 및 유료 판매 면적의 증가가 중요하다. 고객의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공급하고 판매처를 넓히는 것이 관측자산당 매출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판매처를 확대하려면 관측자료를 고객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역량도 필요하다. 동사는 위성 데이터 플랫폼 EarthPaper를 통해 영상 검색·구매와 분석 서비스를 연결하고, 자체 영상뿐 아니라 외부 영상도 활용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한다. 초해상화(SR)와 결측 보완(GF) 기술은 영상의 활용도를 높이며, 대상물 탐지·분석 알고리즘은 원천 영상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다. 오일탱크 탐지와 저장량 추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고객은 영상을 직접 해석하는 대신 분석 결과를 활용해 시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확대되면 별도의 영상 분석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어, 데이터의 활용 범위와 판매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영상 공급계약은 이러한 사업모델을 실제 고객 수요와 연결하는 사례다. 동사는 경기도·멕시코항 영상 공급계약에 이어 2026년 9월 카자흐스탄 국영우주공사 KGS와 메탄 관측 위성 데이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데이터는 카자흐스탄 정유·천연가스 시설의 메탄 배출 관측과 국가 차원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배출 위치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의 자료를 비교해야 하므로, 환경관측 데이터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요와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고객의 구체적인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하는 과정은 초기 영상 판매

이후 후속 데이터와 분석 서비스로 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자체 위성군 구축과 데이터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영상 판매·분석 사업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2026년 9월 초 기준 경기도 관련 영상 매출은 아직 인식되지 않았으며, 멕시코 계약의 매출 기여도 제한적이었다. 현재는 관측자산과 공급체계를 마련하면서 계약을 매출로 연결하는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 자체 위성군 구축에는 제작·발사비가 선행되고 감가상각비와 운용·데이터 처리 비용도 발생하므로,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전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미 확보한 영상의 추가 판매에는 신규 위성 제작이 필요하지 않아, 고객과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관측자산의 활용도를 높일 여지가 있다. 향후 공급계약 이행과 반복적인 유료 거래가 축적되면서 제조사업에 더해 데이터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초소형위성 발사 계획



주: 회사의 기존 계획을 제시한 자료로, 실제 발사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위성 영상 판매 및 분석 서비스 예시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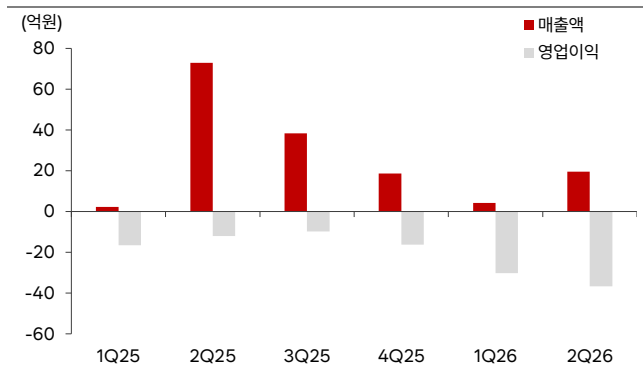
1H26 실적: 수주 지연으로 매출 공백 확대, 선제적 비용 부담으로 영업적자 확대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24억 원(YoY -68.6%), 영업손실은 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29억 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다. 사업별 매출은 위성플랫폼이 18억 원으로 전체의 77%, 위성운용이 4억 원으로 15%, 위성영상 및 분석이 2억 원으로 8%를 차지했다. 위성 플랫폼 부문에서 주력 제조사업의 납품·검수 및 신규 프로젝트 착수 일정이 전년 대비 실적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K-RadCube 등 대형 프로젝트의 납품 매출이 집중됐던 역기저효과와 더불어 올해 신규 위성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 시차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

매출 감소와 동시에 선제적인 인력 및 사업 인프라 확보에 따른 비용 증가는 손익 부담으로 작용했다. 상반기 판관비는 63억 원(YoY +68.9%)으로 증가했다. 위성 설계·제작 수수료 확대에 대비한 전문 인력 확충 영향으로 급여가 18억 원(YoY +31%)이 발생했으며, 감가상각비 12억 원 와 지급수수료 10억 원 및 경상 연구개발비 6억 원도 증가했다. 여기에 원재료 재고자산평가손실 약 7억 원까지 반영되면서 매출총이익률은 -16.3%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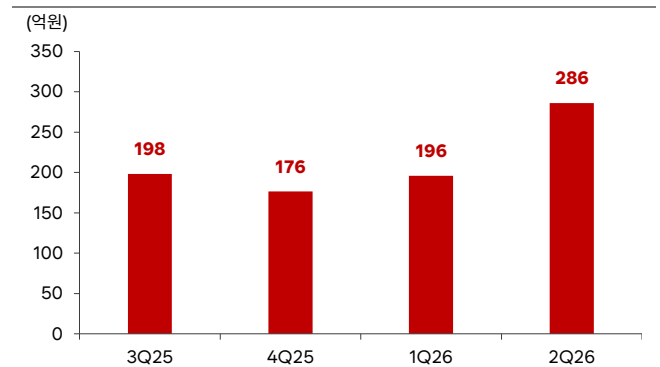
다만, 향후 매출의 선행지표는 확대되고 있다. 2026년 6월 말 수주잔고는 약 286억 원으로 2025년 연간 매출액 132억 원의 약 2.2배이며, 계약부채 역시 2025년 말 약 33억 원에서 2026년 6월 말 84억 원으로 증가했다. 통상 계약금으로 약 40%를 수취하고 있어 계약부채 증가는 신규 프로젝트의 선금금 유입과 향후 수행의무 확대를 반영하는 지표로 판단된다.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분기 수주잔고 추이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하반기 제조 매출 확대에도 비용 부담 지속

2026년 매출액은 149.6억원(YoY +13.0%), 영업손실은 92.6억원(적자지속)을 전망한다. 상반기에는 주요 프로젝트의 수주 지연으로 매출이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기수주 위성의 제작이 진행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매출액은 126.0억원으로 상반기 23.6억원 대비 크게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상반기 67.0억원에서 하반기 25.6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위성 제조 매출액은 1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부품 실증과 환경관측 등 기존 프로젝트의 제작 매출에 신규 우주 물량의 일부가 더해지며 하반기 매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조계약은 최종 납기 이전에도 제작 진행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는 만큼, 장기계약의 수행 역시 당해 연도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영상 판매·분석 매출액은 데이터 공급 일정 지연을 반영해 5.0억원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한다. 외부 위성 제조 수요에 우선 대응하면서 자체 위성군 구축과 데이터 공급 일정이 후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초 기준 경기도 관련 영상 매출은 아직 인식되지 않았고 멕시코 계약의 매출 기여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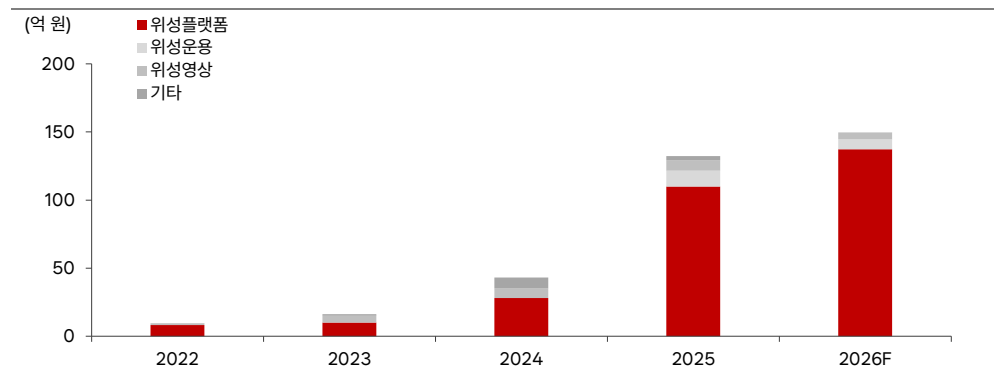
매출총이익률은 하반기 제조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로 전년 24.3%에서 26.8%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 확대에 대비한 인력 충원과 인프라 확충으로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판관비는 전년 대비 52.8% 늘어난 132.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 증가에도 판관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연간 영업 손실은 전년 54.6억원에서 92.6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매출 회복에 따라 손실이 축소되었으나, 연간 흑자전환에는 추가적인 매출 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6월 말 기준 수주잔고 계약 납기 분포

계약 최종 납기	2026년 6월 말 수주잔고(억 원)	비중
2026년	2.6	0.9%
2027년	104.3	36.5%
2028년	67.7	23.7%
2029년	50.3	17.6%
2030년	61.1	21.3%
합계	28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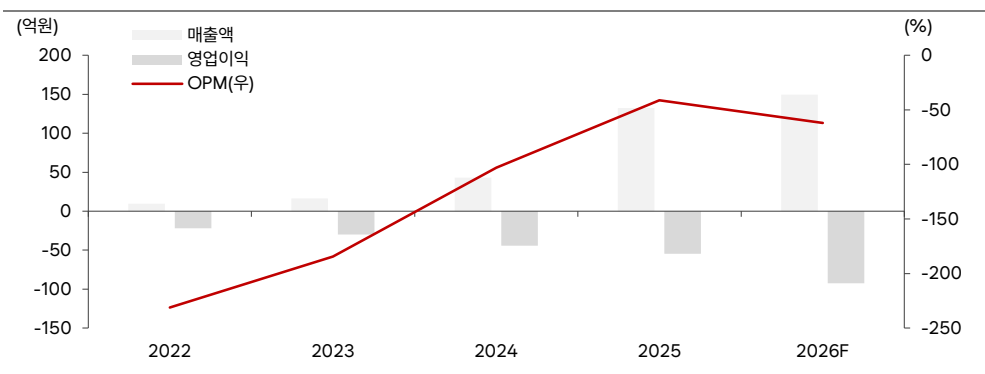
주: 반기보고서의 계약별 수주잔고를 '최종 납기 연도'별로 합산한 재가공표. 계약 최종 납기 기준이며 실제 매출 인식시기와는 상이함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사업부문별 매출 추정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실적 추정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IPO 당시 흑자전환 전망 조정, 수익성 회복 가시화가 필요

중장기 외형 성장 지속과 이익 창출 능력 확인 필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25년 IPO 당시 2027년 예상 당기순이익 81.7억원을 연 20%의 할인율로 현재가치 환산한 뒤, 유사기업 평균 PER 51.7배를 적용해 기업가치를 평가했다. 위성 제조사업 확대와 자체 위성군을 활용한 데이터 서비스 상업화에 따른 이익 성장을 전제로 한 평가였다. 당시 2026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은 각각 348.4억원, 75.1억원이었으나, 현재 당사는 매출액 149.6억원과 영업손실 92.6억원을 예상한다. 대형 제조사업의 수주 시점 지연과 데이터 서비스의 매출 기여 지연으로 당초 예상했던 외형 확대와 흑자전환 전제가 달라졌다.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현 단계에서는 PER을 활용한 비교에 제약이 있어 EV/Sales를 상대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EV/Sales는 순현금과 차입금 등 재무구조 차이를 반영한 기업가치를 매출액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출의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직접 반영하지 못하므로, 사업별 매출 구성과 이익률, 향후 자금 소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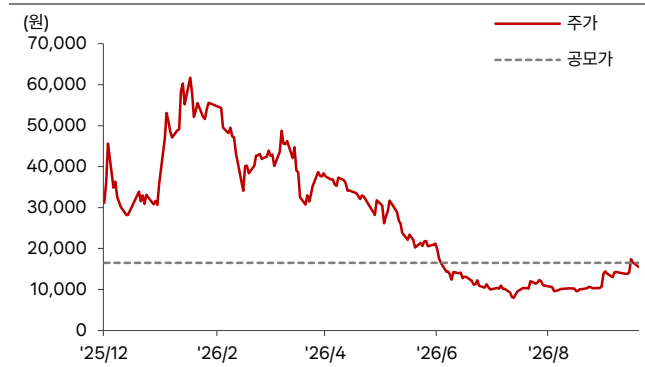
2 동종기업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 수주 확대와 이익 창출 능력 확인 필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1,100억원, EV는 832억원이다. 당사 2026년 예상 매출액을 적용한 EV/Sales는 5.6배이다. 주요 비교기업인 세트레이아 2.1배, MDA Space 3.5배, Redwire 3.7배와 비교하면 중앙값 3.5배 대비 약 59% 높은 수준이다. 동사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61.9%로 비교기업보다 낮아, 현재 실적만으로 높은 배수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별 사업 규모와 매출 구성, 수익성 및 실적 산정 기준에 차이가 있어 배수 비교는 기업가치 평가의 보조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사의 높은 평가배수에는 제조사업의 확장성과 데이터 서비스의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주 운용 이력을 확보한 위성 플랫폼은 후속 제작과 다양한 임무의 개발사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체 위성군과 영상 분석 역량은 위성 제작 이후에도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의 확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영상 판매·분석 사업은 올해 예상 매출액이 50억원으로 전체의 약 3.3%에 그쳐, 현재 실적보다 향후 관측자산과 고객 확대에 따른 성장 여력이 기업가치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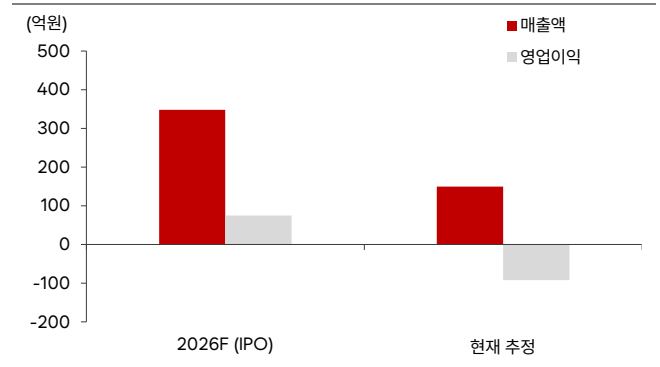
반면 대형 제조사업의 수주 시점과 데이터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단기 매출에 반영되는 속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 일정 지연으로 단기 매출 규모가 제한되는 점도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평가배수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재의 평가배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업의 추가 수주가 안정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데이터 서비스에서도 실제 공급과 반복 거래가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자체 위성군 구축에 따른 투자 부담을 고려하면 매출 증가뿐 아니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이익 창출 능력의 확인도 중요하다. 향후 기업가는 이러한 성장 기대가 실적과 현금 창출로 구체화되는 속도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상장 이후 주가 추이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나라스페이스 IPO 당시 실적 전망 대비 당사 추정치 변화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업종 기업 비교

(단위: USD 백만, 억 원, %, 배)

기업명	통화	종가 (현지통화)	시가 총액	EV	매출액		영업이익률		EV/Sales	
					2025	2026E	2025	2026E	2025	2026E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KRW	9,470	1,100	832	132	150	-41.3%	-61.9%	6.3	5.6
세트렉아이	KRW	54,300	5,950	5,220	2,069	2,512	4.9%	7.1%	2.5	2.1
루미르	KRW	5,280	940	640	106	N/A	-11.6%	N/A	6.1	N/A
MDA Space	CAD	40.59	4,634	4,620	1,196	1,322	9.7%	8.2%	3.9	3.5
Redwire	USD	8.91	2,227	1,760	335	475	-68.5%	-28.2%	5.2	3.7
평균							-18.0%	-4.3%	3.9	3.1
중앙값							4.9%	7.1%	3.9	3.5

주: 종가를 제외한 해외 상장사 금액들은 백만달러 기준, 국내 기업들은 십억 원 기준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프로젝트별 매출 인식 시점 및 고객 집중에 따른 실적 변동성

나라스페이스의 위성 제조사업은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제작·시험·검수 일정에 따라 매출 인식 시점이 달라지는 구조다. 계약 조건에 따라 진행률 또는 납품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며, 대형 프로젝트의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 2026년 상반기 한화시스템향 매출 비중은 52.4%로, 일부 주요 고객과 프로젝트의 실적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정부·공공기관 및 방산 관련 프로젝트는 발주처의 예산 집행, 개발 일정, 검수 절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성 제조는 고객별 요구 사양이 상이하고 설계 변경이나 추가 시험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원가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개발 인력과 생산설비 관련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수주 확대 과정에서는 계약별 납기 준수 여부와 함께 제조원가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자체 위성군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 확장 및 투자 회수 부담

나라스페이스는 외부 고객의 위성 제조 수요에 우선 대응하면서 자체 위성군 구축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위성영상 확보와 데이터 서비스 상업화 시점도 후행하고 있다. 자체 위성군은 고빈도 관측 데이터 확보와 반복적인 서비스 매출 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구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데이터 사업의 외형 확대와 수익구조 다변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성 제작·발사와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에는 선행투자가 수반되므로 사업화 지연은 투자금 회수 기간을 장기화하는 요인이다. 자체 위성군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데이터 매출 확대가 지연될 경우 현금흐름 개선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위성 제조 프로젝트 중심의 매출구조가 유지되면서 개별 수주와 납품 일정에 따른 실적 변동성도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자체 위성의 추가 발사 일정과 정상 운용 여부, 데이터 서비스 매출 확대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장/단기 수급 부담

2026년 6월 말 공시 기준, 2026년 12월 17일 보호예수 해제가 예정된 주식은 약 40.6만주로 당시 발행주식수의 약 3.5%에 해당한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이 크지 않은 규모다. 반면 최대주주 등 보유 물량이 포함된 2028년 12월 17일 해제 예정 물량은 395.6만주로 34.2%에 달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 유통주식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 성과와 별개로 주식 수급 변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나라스페이스 보호예수 해제 일정(2026년 6월 말 / 총발행주식수 11,570,133주)

구분	해제 예정일	주식수(주)	총발행주식수 대비
1차 해제	2026.12.17	406,293	3.50%
2차 해제	2028.12.17	3,955,909	34.20%
보호예수 합계	-	4,362,202	37.70%
현재 유통 가능 물량	-	7,207,931	62.30%

자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0	16	43	132	150
증가율(%)	N/A	69.9	164.1	207.9	13.0
매출원가	6	14	20	100	110
매출원가율(%)	60.0	87.5	46.5	75.8	73.3
매출총이익	4	2	23	32	40
매출이익률(%)	37.4	12.6	54.3	24.3	26.8
판매관리비	26	32	68	87	133
판매관리율(%)	260.0	200.0	158.1	65.9	88.7
EBITDA	-18	-24	-27	-35	-65
EBITDA 이익률(%)	-192.2	-144.4	-64.0	-26.6	-43.2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22	-30	-44	-55	-93
영업이익률(%)	-231.1	-184.4	-103.1	-41.3	-61.9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106	-109	-63	-22	5
금융수익	1	1	5	5	7
금융비용	107	110	67	24	2
기타영업외손익	-0	-0	-1	-2	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28	-139	-107	-77	-88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0	0	0	0	0
계속사업이익	-128	-139	-107	-77	-8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28	-139	-107	-77	-88
당기순이익률(%)	-1,337.7	-854.5	-249.7	-58.0	-58.8
증가율(%)	N/A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28	-139	-107	-77	-88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	-12	-29	-35	-8
당기순이익	-128	-139	-107	-77	-88
유형자산 상각비	1	4	14	17	25
무형자산 상각비	2	3	3	3	3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9	6	-8	-7	37
기타	107	114	69	29	1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9	7	-39	-93	-203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3	-9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7	-21	-35	-41	-64
기타	-42	28	-4	-49	-13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9	-2	197	275	-2
차입금의 증가(감소)	-0	-1	-0	-2	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295	1
배당금	0	0	0	0	0
기타	99	-1	197	-18	-4
기타현금흐름	0	0	0	0	-3
현금의증가(감소)	31	-7	129	147	-217
기초현금	13	44	37	165	312
기말현금	44	37	165	312	95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83	41	228	422	362
현금성자산	44	37	165	312	95
단기투자자산	36	0	1	49	165
매출채권	0	0	3	1	1
재고자산	1	1	32	23	50
기타유동자산	1	3	27	37	51
비유동자산	30	62	99	131	190
유형자산	19	43	71	113	152
무형자산	11	10	7	5	4
투자자산	0	1	3	5	14
기타비유동자산	0	8	18	8	20
자산총계	113	103	327	553	552
유동부채	290	434	761	47	118
단기차입금	2	1	1	0	0
매입채무	2	1	9	6	11
기타유동부채	286	432	751	41	107
비유동부채	27	8	7	30	3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	1	0	0	0
기타비유동부채	25	7	7	30	38
부채총계	317	442	768	77	156
자배주주지분	-204	-339	-441	476	396
자본금	1	1	4	12	12
자본잉여금	0	0	0	986	28
자본조정 등	3	7	9	10	16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208	-347	-454	-531	341
자본총계	-204	-339	-441	476	396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N/A	N/A	N/A	N/A	N/A
P/B(배)	N/A	N/A	N/A	6.8	3.0
P/S(배)	0.0	0.0	0.0	20.9	7.9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N/A	N/A	N/A	0.0	0.0
EPS(원)	-1,732	-1,747	-1,193	-783	-761
BPS(원)	-2,563	-4,256	-4,583	4,128	3,425
SPS(원)	130	204	478	1,349	1,294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62.8	51.2	27.5	-440.6	-20.2
ROA	-113.6	-128.7	-49.9	-17.5	-15.9
ROIC	N/A	-104.1	-84.5	-53.9	-65.8
안정성(%)					
유동비율	28.4	9.4	29.9	897.2	306.6
부채비율	-155.3	-130.5	-174.0	16.2	39.4
순차입금비율	-109.7	-114.1	-119.5	-74.5	-63.8
이자보상배율	-4.7	-7.1	-4.3	-383.9	-34,175.2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1	0.2	0.2	0.3	0.3
매출채권회전율	82.2	178.4	31.3	76.3	188.1
재고자산회전율	6.8	11.2	2.5	4.8	4.1